



연합회소식



[연합회장 동정]

환경부 장관 조찬 간담회

연합회 박천상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자원재활용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한 환경부 장관 조찬간담회에 참석 했다.

대전 · 충남 연기지회 환경인 체육대회 참석

박천상 연합회장은 지난 7월 4일 대전 · 충남 연기지회 환경인 체육대회에 참석 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연기군 환경사업소 운동장에서 12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군수 대신 부군수가 참석하여 환담이 있었고, 박천상 회장의 축사도 있었다.

박회장은 협의회의 활성화와 단합을 강조했다.

[연합회 동정]

제6회 환경영책 설명 및 신기술 발표 · 전시회 성황리 마무리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제6회 환경영책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의 환경관계인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1분과 - 물환경분과, 2분과 - 환경전략분과, 3분과 - 대기 및

기후변화분과, 4분과 - 자원순환분과 등 4개분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연합회 박천상 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영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찾아준 전국의 환경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환경영책의 현안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영책 설명회에 화환을 보내주신분

- (주)태영건설 김외곤 대표이사
- 롯데건설(주) 이창배 대표이사
- 쌍용건설(주) 김병호 대표이사
- (주)포스코건설 한수양 대표이사
- SK건설(주)유웅석 대표이사
- (주)서희건설 곽선기 대표이사

이외 많은 분들의 화환과 축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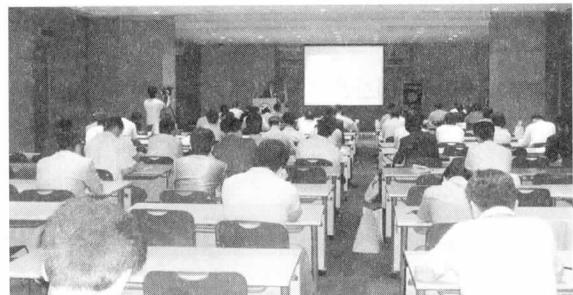


제13회 환경의 날 기념 ‘물환경 정책 설명 및 신기술 발표회’ 성료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박천상)는 제13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환경기술전(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사기간 중 6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환경 정책설명 및 신기술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산업체에서 나와 물관련 정책 및 신기술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경정책을 청취하며 질의응답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 내용은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이형섭 사무관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종합계획 설명’을, 디에이치엠(주)/한국기계연구원 김영주 박사가 ‘폐수 및 폐기물 준설 시스템’을, 환경부 유역총량제과 조석훈 사무관이 ‘수질오염총량제 향후 정책 방향’을, (주)한독이엔지 황열순 대표이사가 ‘고농도 유기성 질소(TN) 폐수처



리기술’을, (주)이화에코시스템 변상철 환경기술연구소장이 ‘외부교환 부숴형 원심탈수기’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고대현 사무관이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방향’을, 동일화학 한규남 실장이 ‘물 재이용을 위한 필터시스템 및 수처리제의 메카니즘’을, (주)대하이엔지 오석찬 팀장이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한 블로워’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채은 사무관이 ‘물환경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지역협의회 동정]

광주·전남 – ‘농촌지역 생활환경 실천 교육과 홍보’ 실시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의회(공동회장 김왕근, 방극진)는 지난 6월 28일 광주광역시 임곡동 황룡강변 월봉서원이 위치한 광곡마을 찾아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실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왕근 회장의 농촌가정에서 생활속에 환경실천운동 방법과 세탁시 사용하는 합성세제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황룡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칭)도농 교류협의회 최남길 선생님의 농작물에 과도한 농약 살포와 사용 후 들에 방치된 농약병과 봉지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한 설명과 빗물에 노출된 퇴비가 씻겨 내려면 강과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농가에서 이에 대한 실천방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세탁시 비누를 사용하여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정책 대토론회’ 참석

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김성기)는 지난7월2일(수) 14:30~18:00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관하는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 정책 대토론회’에 김성기 회장 이하 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 참가자로는 대구경북협의회 김성기 회장이 참가했으며, 윤종석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정현수 맑고푸른대구21 사무국장, 토론진행자 김봉수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이 있기 전 행사로는 박종록 대구지방환경청장의 환경부 환경영책방향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사례발표를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정응호 교수는 2011세계육상 선수권 대비 폭염관리 및 도시환경정비 방향에 발표 하였다.

참석의 휴식 후 강재형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영남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백성옥 교수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사례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반응은 영남대학교 백성옥 교수의 날카롭고 현실적인 환경영책 비판과 방향제시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이어 환경영책 대토론회가 이어졌으며, 우리지역 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성기 회장은 대기, 수질 등의 배출업소와 민·관이 한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마음이야 말로 대구지역의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당부를 참석자들에게 하였다. ☺